

### 3부 요한복음: 예수님 대신 다른 위로자 성령님이 오신다

성경말씀: 요14:16-18

요한복음 13장, 발을 씻겨 주심,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의 근심, 14장부터 주님의 위로, 1. 너희는 천국에 간다. 2.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오늘 < > 예수님이 가시고 교호 시대 열리며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2020년 마지막 예배,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소개하는 시간

마지막 만찬의 다락방, 이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님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다(14-16장).

이유: 성령님의 도움과 위로가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 등을 알아야만 한다.

#### 성령님의 이름

다른 위로자(16), 진리의 영(17)

위로자, 요한만 쓴 단어(14:16, 26; 15:26; 16:7, 요일2:1)

위로자: 우리와 같이 가면서 돕는 존재, 동행하며 돕는 존재

우리는 피동적이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보통 comfort의 뜻: 위로한다. 위안하다. 맞는 말이다.

원래 영어 단어 comfort는 '힘차게 하다'의 뜻, 강하게 하다

원래 뜻을 살리면 '우리를 강하게 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하며 싸우고 나가게 하시는 분'

우리의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것 아니다.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요일2:1, 변호자,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기게 해 주시는 분

경찰, 검찰 조사, 변호사의 위로, 안위

진리의 영(17)

진리: 명사 235회, true 81회

예수님은 진리이다(요14:6).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17:17).

성경이 말하는 진리: 대개 하나님의 말씀(단10:21)

성령님은 성경 말씀에 영감을 주시는 분(딤후3:16; 벴후1:21), 성경의 저자

말씀에 조명을 주시는 분, 이해하게 하시는 분

진리의 영: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거짓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말씀에 위배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고후(13:8)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

1.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하신다. 2. 세상의 사악한 행로를 보게 하신다.

3.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26).

불신자들: 하나님의 섭리, 신비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생긴다.

성경을 보면 세상의 행로가 보인다.

아무리 악이 창궐해도 결국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 순식간에 파멸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

####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 침례(마3:11), 신자 성령 침례, 불신자: 지옥 불 침례

언제 처음 이루어지는가?

행1:5 이후, 사도행전 2장

성령 침례: 모든 신자에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 성령님 속으로 푹 잠기는 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 침례: 성령 봉인

성령 충만(엡5:18)

성령님의 충만: 그분에 의해 지배되는 삶

이것은 간구하며 힘을 써야 한다. 육을 죽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엡5:18-6:8, 성령님의 일, 기쁨, 감사, 복종

갈5:22,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려면

1.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15:26)
2.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영원히 머무신다(16).

아들의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선물

예수님의 지상 사역: 그분이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함

이제 그분이 떠남,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머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함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일하심: 아브라함, 삼손, 다윗 등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기도 하였다.

사울(삼상16:14; 18:2), 다윗(시51:11).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님이 주어진 이후로 그분은 신자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의 의미

23절: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이 두 분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거처 안에 있다. 이것이 내주

낙심에 빠지는 경우: 나는 혼자다. 자기 연민,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가 아프다고 해 보자. 부모는 결코 아이를 떠나지 않는다. 심지어 아이가 죽는다 해도 같이 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내주

내 생각: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신다. 죽음의 병상에 홀로 남겨  
되어도 주님이 함께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시23:4)

### 다른 위로자의 뜻(16)

다른 위로자(16), another, 같은 종류의 다른 것

사과: 여러 종류, 아오리, 부사, 홍옥, 홍로 등

즉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는 다른 인격체

그럼에도 동일한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도 손해가 없다(16:5-7). 오히려 유익하다.

다른 인격체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롬8:9). 그리스도의 영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게 된다.

과거의 읍,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

바로 앞의 빌립처럼 아버지를 한 번 보면 좋겠습니다(8).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보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다.

“주님 참으로 인생이 어렵습니다. 모든 일이 꼬여서 출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병, 경제, 결혼, 직업, 학업, 인격의 변화, 교회 찾기 문제, 성화 문제, 국가의 체제 붕괴 문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분명히 문제가 풀릴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과 대화한 뒤 문제를 해결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어라고 하시는가?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라.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줄 응답과 그분의 줄 응답이 동일하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중동의 예루살렘에 계셨다. 지금 그분이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자.

예루살렘행 비행기표 매진, 기차표, 배표, 버스표 다 매진

혹시 거기에 갈 수 있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1초도 만나기 어렵다.

그런데 주님이 무어라고 하시는가?

나를 1분 동안 먼발치에서 보려고 여기로 올 필요 없다. 나와 동일한 하나님,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너희 속에 영원히 머물고 계신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내게 접근해서 대화를 나누듯이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를 하라.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아빠

먼저: 시범을 보인다. 그 뒤 두 손으로 잡아 준다. 그리고 자세히 안내해 준다. 한 손으로 잡아

준다. 두 손을 다 놓는다. 그리고도 그 아이를 쫓아간다. 넘어지지 않게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고후7:4-7, 특히 6절을 보라.

사도 바울도 낙심, 디도가 옴, “바울 형제, 잘 지내요?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바울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 디도가 듣고 바울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 위로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위로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

#### 예수님의 위로

2020년 코로나 창궐, 모든 사정이 어렵다.

지금까지 인생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 없이 두지 않는다(18). comfortless, 위로 없이

즉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함께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다.

너희는 잠시 후에 다시 나를 볼 것이다(19).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이 흘러간다. 어려움이 닥친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2020년 마무리하고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하자.

시23:4-6